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편집인 조명작
주간 이석우
편집장 이지환
인쇄인 허수남

서울캠퍼스(우: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5849 FAX(963)5849
수원캠퍼스(우: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5)5702(교환: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0331) 280-2238

제1001호 〈주간〉 1992년 5월 18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납인가 1964. 1. 등록번호 다-12 (1955년 5월12일 창간)

복지회관 8월중 완공 불투명

도시계획 심의 관계로 착공 늦어질 듯

92학년도 등록금 기한의식에서 오는 8월중 완공키로 명시된 복지회관의 건설이 불투명한 상태다.

건설부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기전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허가'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통과 기간이 법적으로 2개월 소요되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제반도면을 작성하는데 2달여의 시간이 걸린다.

건축허가가 나면 그에 따른 예산과 시방서 제작 작업이 있게되며 입찰을 공고해야 된다.

위와같이 착공에 걸리는 기간도 총7개월 소요돼 착공이 가능한 시기는 오는 11월로 예상된다. 별도로 일반 건설업체가 학교 건물의 건설을 최피해 입찰에 소요되는 시간이 연기되고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각종 건자재의 공급미비된 작업이 지연된다면 복지회관의 완공시기는 그만큼 뒤처지게 된다.

한편 건설부는 지난 16일 의료원 노동조합 사무실이 철거됨에 따라 3월16일 동대문구청에서 반려된 '도시계획 변경허가'심의 서류를 이번 주중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완성된 복지회관 서류는 입면도, 평면도, 건물 배치도등 도시계획 심의에 필요한 기초적인 도면뿐이며, 이 도면에 따르면 복지회관은 노천극장 뒤의 교수 정구장 자리에 세워지게 된다.

복지회관의 기본 골간배치를 살펴보면 총1천9백10여평 규모로 1층에 2백90평 수용의 공연장과 3백평 수용의 휴게실이 설치된다.

또한 2층과 3층에 각각 3백평, 3백50평등 총6백50평 수용의 학생식당이 배치되며 4층에는 교수전용 식당 및 휴게실이 3백평 수용의 규모로 지어지며 5층에는 각종 편의점및 은행과 회의실, 전시실이 시설된다.

통노한 출전곡 모집

총학생회 문화부와 단대 문화부는 오는 25일까지 통일노래한마당(이하 통노한)에 나갈 창작곡과 자주 경희 진군가를 모집한다.

통노한에 출전할 창작곡은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해 싸워 나가는 청년학도의 힘찬 모습과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민중의 삶을 담은 노래여야 한며 심사는 오는 27일 단대 노래패에서 맡는다. 한편 자주경희 진군가의 심사도 이날 같이 한다.

전파공, 발전기금수혜

한국이동통신서, 2억7천만원

공과대 전파공학과는 지난 7일 체신부가 주최한는 '전파공학과 신입생 초청간담회'에서 한국이동통신주식회사로부터 1학기 장학금 총8백만원을 수여받았다.

신승민군외 총8명에게 지급된 이번 장학금은 신입생 특약학과인 전파공학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학기 때도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이동통신주식회사는 앞으로 4년간 총5억7천여만원의 기금을 지원할 예정인데 올해 기자재 설비로 2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한국이동통신주식회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졸업생 1백명에 한해 무시험전형으로 특별채용할 것을 발표했다.

한편 전파공학과는 93학년도 대학원에 전파공학과를 신설키 위해 준비중에 있으나 아직 과사무실이 없어 대학원연구실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경영대학원 세미나개최 20일 프레스센타에서

경영대학원은 오는 20일 오후3시 프레스센타 국제회의실에서 '개방체제하의 경영, 노사, 안전, 관리전략'과 'Made in Korea' 제품안전대책은 서 있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수협, 평의원 회의 개최

대학입시, '2과목이상으로 시험' 재고 요청

교수협의회는 지난 12일 오후5시30분 교수협의회실에서 평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3가지 (대학입시 결정에 관한 사항, 교수급여에 관한 사항, 등록금 가합의서에 관한 사항) 안건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학입시 결정에 관한 안건에 대해 평의원들은 94학년도 본고사 입시에서 1과목만 시험을 치른다면 학생들의 변별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의견을 모아 2과목 이상 시험을 치르도록 입시대책위원회에 재고를 요청한 였으며 교수급여에 관한 안건에 대해 타학교 수준과 비교하여 작년도와 대비하여 14% 인상을 학교측에 요구하였다. 등록금 가합의서에 대한 안건은 합의서가 만들어진 뒤 암 컴퓨스별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등록금 협상 중에 발생된 교수·학생간의 거리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총학생회 대표들과 모임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평의원 회의 직전 총장면담이 있었는데 이날 면담에서 조영식 총장은 "교수들의 연구활성화를 위해 교내 연구비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등록금 협상의 지연으로 1학기에 있을 교수 문화행사가 준비 미비로 2학기에 있을 예정이다.

카오스, 블파 '록페스티발'

전자공학과와 기계공학과 록그룹(이리 카오스, 블파(불고기파티))는 오는 21일 오후4시 경대 시청각실에서 조안트콘서트로 '제1회 록페스티발'을 공동주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스키드로우', '오지 오스번'등의 정통 록음악이 선보이게 된다.

학·연 협동연구계획 올해부터 시행

'92 후기 석·박사 과정 모집

일반대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과기연)은 지난해 6월17일 과학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에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동인식하고 일반대학원과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약정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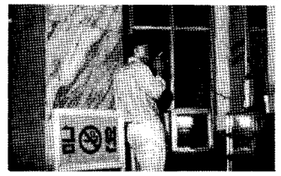
이 약정에서 양 기관은 교육인력, 시설, 실험·실습기자재를 공동으로 연계 활용하여 산업체의 과학기술개발에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것을 규정짓는 한편, 입학자격 및 전형절차, 학위수여는 대학원의 학칙에 따른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총장에 걸쳐 논의한 규정은 대학원장, 본교총장, 과기연원장이 위촉하는 3인 내지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다루기로 됐다.

학·연협동연구 석·박사과정 운영위원회는 올해 5월1일 대학원 본장실에서 첫모임을 가져 운영위원회 규정안을 심의하고 '92 후기 석·박사 과정 모집내용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일반대학원 정원 외 모집인 학·연합동연구과정은 기업체나 산업체에 근무하는 대학교 졸업자로서 이공계열및 의·약학계열 석사12명, 박사6명을 선발한다.

시험과 편입은 오는 6월18일 대학원에서 치르게되며, 합격자는 (공)대교수·정치학) 대학원장은 앞으로 교육부에 92년도 후기 석사백10명, 박사70명의 증원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연'이라는 표지판을 무색케하는 무뢰한

명마스 공정 상심된 공중도덕을 회복하는 앞은 질서에 대한 무감각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난 15일 중앙도서관에서〉

〈정미경 촬영〉

오늘은 개교 기념일 입니다

사 고

詩문예현상공모

형식제한없이 오는 25일 마감

본사는 개교 43주년과 창간 37주년을 기념하여 대학인들의 문예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詩창작능력의 질적 고양을 위해 '제3회 대학주보 詩문예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응모기간:1992년 5월25일까지
▲응모부문:시(원고량, 형식에 제한없이 3편이상)
▲응모자격: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원고제출처:서울 편집실(구내전화 0095), 수원 편집실(구내전화 2056)
▲심사위원:추후발표
▲입상작 발표:6월1일자 대학주보 지면을 통해 발표
▲입상작 처리
1)당선작 1편:상금25만원과 상패 및 다음학기 장학금 전액 지급
2)가작 2편:각 상금12만원과 상패 다음학기 장학금 30만원 지급
3)입선작3편:대학주보 게재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및 상패

대학주보사

자대 대의원장 선거실시

등록금투쟁 관계로 늦어져

자연과학대 대의원회는 오는 20일 자대대의원장선거를 실시한다.

선거는 후보등록마감일인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남궁문범(수학·3), 이성윤(수학·4) 두사람을 놓두로 1·2·3학년으로 구성된 대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이날 진행되며 바로 결과발표가 있게된다.

한편 총대의원장 이영석(경영·4)군은 이번 선거가 등록금 투쟁으로 인해 모든 학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곧 총대의원내에 복지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학내 제반복지문제를 논담토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삼의원 open-house열어 전시회 등 각종행사 개최

삼의원은 축제기간인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9시30분까지 open-house를 개최한다.

이번 open-house는 기숙사생들간의 단합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되며 사진·미술 전시회등 각종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무관심과 무계획에 변질된 일일찻집

夜見塔

▼'모월 모일 모과에서 구속학우 쾌바라지를 위한 하루 먹거리가 열립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다지 생소하지 않은 문장이다. 하루 먹거리, 한잔 다지기, 하루 찻집 등으로 불리어지는 '일일찻집(호프)'은 누구나 대학생활 속에서 한번쯤은 접해보는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잡힌 지도 오래이다.

▼'일일찻집(호프)'은 같은 집단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었던 구성원들의 단합 도모와 자체 회비나 가끔씩 받는 보조금으로는 부족했던 활동비 마련,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는 공유하고자 하는 사안의 내용과 의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한 행사이다. 다른 행사에 비해 많은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행사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최근 있었던 모 동아리와 모학과의 경우를 볼 때, 타 학우들의 참여에 의한 행사 진행이라기보다는 주최 학우들 자체내의 야유회 행사로 전락해 버린 듯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인지 활동비 마련이나 함께 하고자 했던 사안에 대한 홍보는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체내의 단합 도모 또한 실질적으로는 이루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버리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결과를 낳은 원인은 우선 주최측의 치밀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데 있다. '일일찻집(호프)'을 단순히 관례적인 형식로 치부해 버린 채 행사 의의에 대해 정립된 생각없이 계획없는 준비를 한 것이다. 다음으로 타 학우들의 개인주의적 무관심도 원인이 된다. 나와 상관없다는 식의 외면은 시대를 함께 하는 젊은이로서의 올바른 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일일찻집(호프)'은 학생이 주최가 되고 손님 또한 대부분이 학생인 학생의 행사다. 원만 찻집이나 호프와는 다른 대학인으로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 고뇌와 의지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주최학우들은 그러한 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며, 타 학우들은 상업성에 휩싸인 카페가 아닌 젊은이의 대화로 물러싸인 '일일찻집(호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야 할 것이다.

5·18 12주년 대학주보 기획광고

"어매 어매 그만 우오"

어머니!
이 막막한 슬픔
그러나 벗들의 죽음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을 외치는 함성이 있기에
우리는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의 죽엄은
영원히 어머니 곁에 남아 있겠습니다.

통일염원 47년 5월18일

대학주보사

열사여! 그대들의 불꽃위에 떨구었던 우리의 눈물은 이제 더이상 흘리지 않으리라!

▲강경대 열사

▲박창수 열사

▲천세용 열사

▲김영균 열사

▲김기설 열사

▲윤용하 열사

▲박승희 열사